

부활과 사랑과 휴거

1. 올해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각 교회에서 <3.16 행사>를 하게 됐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2.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각 나라, 각 교회에 많은 성전을 마련했으니, <올해 3.16 행사>는 각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 먼저 성전을 새로 마련한 한 곳에서 <전체 생방송>으로 다 같이 참여하고, 이후에 각 교회도 영광을 돌리게 하자.” 하셨다.
3. <월명동>에서 3.16 행사를 하면, 해외에서는 거의 참여를 못 한다. 4000명의 인원이 있는 나라는 많이 와야 500명 정도가 월명동으로 온다. 그러면 전체의 약 10분의 1만 오는 것이다. 그러니 소수만 3.16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4. 한국도 그러하다. <월명동>에서 하면, 다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각 교회>에서 하면 95% 이상 참여한다. 또 낮에 못 오는 사람들은 월명동에 못 왔다고 한탄하지 않고, 저녁에 교회에 와서 참여하면 된다.
5. 이 같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과 성령께 의논을 드렸을 때,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미 다 아시고 “각 나라, 각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하자.” 하시며, <자기 위치, 자기 삶의 터전>에서 참여하게 하셨다. 이로써 청중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으로 인한 <행사의 혼잡>도 없고, <번거로움>도 없고 <교통 문제, 주차 문제>도 없고, <각종 위험한 일들>도 없게 되었다.
6. 월명동에는 새벽부터 비가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다. 새벽부터 계속 비가 차근차근 쏟아지니
 - <월명동 전체>가 ‘비로 인한 안개’로 침침하고,
 - <운동장>은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고,
 - <잔디성전>은 물을 잔뜩 먹어서 밟거나 앉으면 푹푹 들어간다.고로 ‘이래서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미 아시고, <각 교회>에서 참여하게

하셨구나.’ 충격적으로 깨닫게 됐다.

7. 육적으로 분위기에 휘말려 <월명동>에서 행사를 했으면, 진흙 수렁에서 수많은 청중이 움직이니 정말 끔찍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며 모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감사드려라.이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난 10년의 십자가 기간> 동안 역사해 오셨고, <40년의 섭리역사 기간> 동안 역사해 오셨다.
8. <주의 희생과 사랑과 가르침>으로, <성령과 성자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섭리역사는 한 때 두 때 반 때에 따라 2015년 3월 16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
9. <3월 16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다. <구원의 한 생명이 탄생한 날>이다.
10. 선생은 ‘작은 마을 월명동 초가집’에서 자라고 성장했다. 누추한 곳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이 생각나게 한다.
11.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는 자>도 ‘사람’인 고로 역시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기도하고 삼위께 배우면서 지혜로 컸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때>를 맞춰서 해야 되기에, 일찍부터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시작했다.
12. 선생은 13세 때부터 가까운 뒷동산에서 기도를 시작했고, 15세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깊은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육도 혼도 영도 닦으며 배웠다. 대둔산 용문굴, 월명동 감람산, 기도굴에서 기도했다. 그리고 34세 때 <복음의 핵심지>인 ‘한국 서울’로 가서 <시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역사를 펴기 시작했다.
13. <하나님의 역사>라도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점점 창대하게 됐다. 고로 <시대 복음>은 한국, 일본, 타이완,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14. <한국 복음 역사의 전반기>를 마치고, <세계>로 시대 복음을 전하러 나갔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예언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행하며 이루었다. 그리고 이어서 ‘시대의 죄’를 위해 <시대 십자가>를 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청산했다.
15. <1차>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시대 죄’를 해결했고, <2차>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신부 단장’ 시키고, 성자가 오신 지 70년이 되던 해, 보낸 자가 땅에서 태어난 지 70년이 되던 해, 2015년 3월 16일에 <휴거 역사>를 했다.
16. 2015년 3월 16일에 <성자>와 <보낸 자의 영>은 <예비된 자들의 영>과 함께 ‘황금성 천국 휴거’를 이루었다. 그리고 <주의 영>은 ‘황금성 천국의 하나님 백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리고 <예비된 자들의 영>은 ‘황금성 천국’으로 휴거되고, <육들>은 ‘땅’에서 휴거됐다. 이로써 <하나님 천지 창조의 목적>을 6000년 만에 실현시켰다. <사랑과 휴거의 역사>다.
17. 2015년 3.16 휴거 후, 3년 동안에는 모두 ‘주’와 같이 ‘시대 십자가’를 지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펴 왔다. 그리고 2018년, <보낸 자의 육신>이 시대 십자가 조건을 다 세우고 부활되어 나왔다.
18. <보낸 자의 육신>은 ‘하늘나라’에 못 가니, 이제 ‘땅의 하나님의 백보좌 우편’에 앉아 삼위의 시중을 들면서 영광을 받게 하셨다.
19. <부활과 평화의 역사>다.
20.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람’을 보내셨으니, 민족도 세계도 ‘평화의 역사’로 돌아간다.
21. <시대의 흐름>을 타서 한국과 북한의 국방 문제도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해 주고 계신다.

22. <전능하신 하나님>은 ‘평화의 왕’ 이시다. <그 보낸 자>는 그의 육이니, 역시 ‘평화의 왕’ 이다. 고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맞는 자>는 ‘평화의 사람’ 이 된다.
23. <주를 맞지 못한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희망을 꿈꾸며 살아간다.
24. 이제 부활되어 <부활과 영광의 때>를 맞았으니, <휴거된 자들>로서 더욱 성삼위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삼위를 모시고 주를 따라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라.
25. 이제는 <육>이 삼위와 주 안에서 <부활된 삶>을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26. 하나님과 성령님은 <사랑하는 자>를 통해 이 땅에 ‘사랑’ 을 주신다.
27. <하나님, 성령님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어 더욱 만족하게 하신다. 이를 깨닫고 <자기 위치, 자기 터전>에서 삼위께 사랑과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때>를 영광으로 살아야 된다.
28. <삼위>와 <그 육신>은 불꽃같은 눈으로 각종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신다.